

Passion Wins

한국외대부속용인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김현지

번역작업은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같은 전제조건에 따르면 우리 고등학생은 번역가로서 실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난 겨울, 전 세계 수천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작성한 IPCC SREX특별보고서를 번역하고자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기후변화 특강을 함께 들은 동기들에게 보고서를 번역하자는 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호응해 주었고 덕분에 지난 8개월간 14명의 든든한 프로젝트 팀원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번역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함께할 팀원을 구성할 무렵, 저는 같은 학년 학생으로부터 장문의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 6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끈기 있게 번역해나갈 열정이 있지만 외고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팀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어진 기한 내에 번역작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누구나 팀원으로 활동해도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본인이 번역하면서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할당된 분량을 성실히 수행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지원 자격은 “지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팀원들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했지만 테스트를 실시한 모든 학생들과 지난 8개월을 함께 보냈으니까요. 물론 테스트를 실시한 학생들 모두(그리고 저 역시)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열정이 실력보다 못하진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소 이상적인 신념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열정이란 놈을 높이 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번역한 총 6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한국어 번역본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대책회의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수 있었던 건 모두 우리 팀원들이 실력만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을 줄 아는 열정과 모험심이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며 보낸 지난 시간은 이제 우리의 기억 한 칸에 말없이 자리 잡고 있겠지만, 이 때 가졌던 열정의 불꽃은 각자에게 소중한 활동에 또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이 책을 읽는 다른 청소년 독자들에게도 나눠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IPCC 특별보고서 SREX의 번역·요약을 마무리하며

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김서희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어느 겨울날 학교 상담실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던 be a changer 프로그램의 문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환경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시작하게 된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활동과, 환경 분야의 과학적 리서치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된 환경 분야 쪽으로 진로를 정했을 무렵이었습니다. Be a changer 라는 프로그램은 환경 문제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인류학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결국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6일간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께 강의를 듣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정을 쌓아 갔습니다. 강의를 통해, 기후 변화의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 수업 중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IPCC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지구의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학자들이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합니다.

마침, 현지와 용인외고 후배들이 마지막 날 발표한 IPCC 번역 활동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고 저를 비롯한 약 스무 명의 학생들이 처음 IPCC 번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IPCC번역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보고서를 학생의 신분에서 공부하고, 번역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전문가들이 보는 보고서를 과연 잘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과연 번역 작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번역 할 당분을 받고, 하루에 한 쪽 식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2월 초에 개학을 해서 학교를 들어간 이후와 설 연휴, 그리고 시험기간에도 저녁시간을 번역에 할애했습니다. 학교의 일과가 끝나고 지친 몸으로 컴퓨터를 켜서 원본을 읽을 때면 가끔씩 '내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쌓여가는 번역량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번역 활동 중간에 이미 IPCC 번역본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be a changer 프로그램과의 소통 문제로 팀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한 팀장 현지와, 다른 팀원들의 관심 속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IPCC 번역은 값지고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원본 보고서를 읽으면서 많은 내용들을 배웠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편집을 할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내가 번역한 부분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등학생들이 번역하고 편집한 것이라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IPCC라는 보고서를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책에 그대로 담았기에 어린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보고서의 번역을 마치기까지 팀 리더로서 너무 훌륭하게 번역 팀을 이끌어준 용인외고의 현지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팀원들을 격려해주고, 솔선수범하여 번역에 도움을 준 덕분에 팀원들이 잘 따라 번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을 함께 한 모든 팀원들과, 이 번역 팀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be a changer 프로그램 담당자 분들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변화한다는 말과 번역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의 열정을 잃지 않고, 항상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독자여러분들도 이 책이 조금이나마 생각의 변화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장장 7개월에 걸친 IPCC 프로젝트가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거대하고 험난한 프로젝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결과물은 더욱 값지고 뿌듯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우리는 IPCC보고서 중 SREX, Special Report on 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극한 현상 및 재해 위험 관리)를 번역했고 검토했고 요약했다. 처음 번역은 매일 1페이지 분량으로 총 27페이지를 번역했는데 시작부터 정말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다 번역하고는 peer to peer 시스템으로 짝을 지어서 각자 서로의 번역본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이 보고서의 번역본이 이미 존재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기존의 협력기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하는 바람에 우리의 피와 땀을 쏟은 번역물이 무용지물이 될 뻔 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모여서 회의 끝에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와 다른 프로젝트가 요약본으로 만들어 기존 번역물과 차별화를 두어 출간하자고 제안했고 여러 전문가와 환경, 기후변화 관계자들에게 도움과 자문을 구하여 마침내 이렇게 완성했다. 힘들었고 갈등도 많은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주체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롭다.

이 IPCC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는 SREX 요약본의 완성이 아닐까 싶다. 단순 번역본보다 우리가 맞닥뜨린 그 난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결과물-요약본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을 내고자 했다는 노력이 그대로 담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요약본은 전문가나 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요약본의 타겟을 우리와 같은 청소년으로 잡았고 그러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 그에 맞게 이해하기 쉽고 질리지 않도록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잘 전달되도록 요약하려고 노력했다.

아직까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마땅히 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이 많다. 나조차도 이렇게 잘 정돈된 전문적인 보고서를 제대로 접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요약본을 읽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기후변화를 이

해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더 깊게 탐구하고 싶은 흥미가 생기거나 미래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다면 프로젝트의 목표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라고 해야겠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힘들고 걱정스러웠고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 같이 적극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마침내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든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노력이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여기까지 함께한 프로텍터들과, 특히 여러 가지 계획 수립과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한 리더 현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부디 이 프로젝트와 요약본이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의미 있고 값진 역할을 해 냈으면 좋겠다.

장장 7개월에 걸쳐 SREX 특별보고서의 번역, 검토, 요약 작업이 모두 이루어졌다. 하루에 1페이지 번역을 위해 매일 두 시간을 다시 보내라고 하면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교 3학년의 위치에서 공부 이외의 또 뜻 깊은 일을 하나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할 따름이다.

나는 본 보고서가 잘 활용되어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 위험에 대한 더 나은 정책들이 수립 될 날을 상상하며 사명감을 다졌다. 또한 내가 맡은 30페이지를 번역 하는 동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는 단어도 찾아보며 문맥에 가장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고, 내가 먼저 문장을 이해하려 몇 번씩 읽고 나서야 한국어로 번역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내용이 많았던 몇몇 페이지들은 번역이 질이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개정판을 낼 일이 있다면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본 번역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요약본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여름방학 전을 활용하여 검토, 수정 작업이 끝났음에도 내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요약본 작업에 나섰다. 그 중 나는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SREX 요약 보고서’ 부분을 ‘청소년 들을 위한 SREX 요약 보고서’로 편집 하였다. 번역물이 중학교에 배포될 것을 고려하여, 내가 제안하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더 공을 들였다. 서론 부분은 쉬운 어휘로 대체하고 문장들을 가다듬었으며 보기 난해한 그림은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다시 조직하였다. 본론 부분은 글 체계를 건드릴 수 없었기에 어려운 문단 밑에 검토자 도움말과 용어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그래프와 지도 밑에는 쉬운 말로 주석을 달았다.

7개월이 순탄하게 흘러간 것만도 아니었다. 우리는 검토 작업이 끝나갈 때 즈음 없다고 들었던 SREX 한국어 번역본이 이미 존재함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졌었다. 게다가 기존 협조기관의 정보제공과 번역물 활용 방안에 대한 책임 회피로 순수한 학생들의 땀이 모두 날아갈 뻔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IPCC 프로क्टर들은 굴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활용과 번역본 차별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강남역에서 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결과의 출구로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팀원들의 차분한 의견제시와 민주적이었던 의견 통합과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IPCC에서 발행되는 많은 보고서들은 학자들만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모든 사

람들의 각성을 위해 발간된 것이며 우리나라 말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심지어 SREX full report 는 영어와 한국어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세계시민 중 몇 명이나 보고서의 요약본이나 서론이라도 읽어보았을까? 우리나라 환경재해정책가, 입법가들은 보고서를 읽어보고 좀 더 나은 상황분석과 정책 수립을 시도해보았을까? 기후변화대응 교육은 최신 정보들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는 할까? IPCC 보고서가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활용 되었다면 세상은 조금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나는 중학교와 여러 도서관에 배포되는 본 번역, 요약본이 미래의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한다. 나도 현재는 부족한 지식의 소유자지만, IPCC를 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나 정책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현지는 프로젝트 첫 기획에서부터 작업량 배분, 검토확인, 스케줄 확인, 각종 기관과의 연락 등을 맡아서 해준 훌륭한 리더였다. 나의 검토 peer에게도 나의 미숙한 번역본을 봐준 수고, 당신의 뛰어났던 번역 실력에 대해 칭찬을 해주고 싶다. 또한 모든 IPCC 프로젝트들이 끈기 있게 달려왔기에 이런 후기를 쓰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가 기후변화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 제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후기를 이만 마친다.

Good Bye, IPCCer!

<길고도 새롭고도 알찼던 여정을 끝마치며...>

영복여자고등학교 3학년

유영임

후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지난 7개월에 걸쳐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애써온 13명의 프로젝터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패기 넘치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들에게 제안해 주었던 프로젝트 최초기획자, 김현지 학생에게 가장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가 없었더라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무한하고도 값진 경험들, 협력과 믿음 속에서 솟아나는 감동과 노력의 결실들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지난 7개월을 되돌아보면 번역과 수능준비 그리고 학교행사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지켜야 할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시 해야 할지, 학교 과제를 먼저 처리해야 할지 말입니다. 모의고사, 내신고사, 경시대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같은 고민이었습니다만 저의 결정은 항상 번역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현지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고 뛰어난 동료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공동의 프로젝트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입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족한 능력을 닦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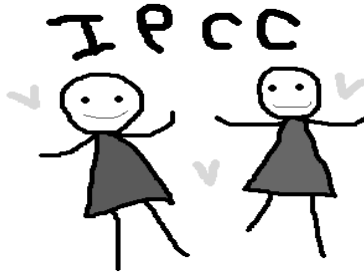
과거에 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꿈꾸었던 훈련생이었고 때문에 대부분의 또래 학생들이 공부를 하던 시기에 저는 빙상에서 육체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꿈이 바뀌었고 현재는 신재생에너지공학자를 꿈꾸며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제게는 항상 남들보다 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늦은 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고에 다니는 여타의 학생들보다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시험공부를 할 때, 함께 토론을 하거나 고민할 때면 걸림돌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타 학교 학생들과 장기간 지적 능력을 공유하며 추진하는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제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뿌듯함이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그러한 저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 단단한 디딤돌이자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쇼트트랙 이후 저의 1등 관심사는 항상 기후변화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던 서울대학교와 KRICCS가 함께하는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형적인 이과생답게도 기후변화를 ‘과학 및 기술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외에는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1차 번역을 할 때 재해위험성, 노출도, 취약성, 회복력의 새로운 범위(저는 1차 번역 당시 제 1장을 담당했습니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일은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내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날에는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 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번역하는 데 투자한 시간이 더 많았을 정도니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도 많았지만 되짚어 봐도 저는 결코 2월 달부터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감히 헛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흥미분야(기후변화)에 관한 더 넓은 시각과 높은 안목을 기를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신념과 의지만으로는 고상이라는 이 바쁜 시기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글로서) 설 수 있도록 해준 동력원은 전부 동료들의 격려와 겸손 그리고 책임의식 덕분이었을 겁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들, 늦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잊지 않던 팀원들,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자 나서서 용어를 정리한다거나 어려웠던 점들을 공유하는 모습들은 때로 지쳐가는 제 자신을 채찍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특별한 동료의식(공동체 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협력의 미학을 배워갑니다. 앞으로 다시는 없을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당신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 도중 새롭게 설정한 목표이자 결과물인 이 책은 후배들을 위한 것이므로 이 책을 읽고 있을, 기후변화에 관심 만!뽕!인 독자들에게 전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과제물을 수행하기 위해 이 책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제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 첫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이 책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책을 완성하기 위해 번역을 하고 요약을 하고 후기를 작성하면서 저의 꿈과 희망을 되새겨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꽃피운 우정과 깨달음의 과정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같은 소중한 경험을 10대라는 이름이 시들어버리기 전에 꼭 한 번쯤 겪어보길 바라며 그것이 제가 이 글을 남겨두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쉬지 않고 도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앞날에 이 책이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하며 후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CC 특별보고서 SREX의 번역·요약을 마무리하며

한국외대부속용인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이혜린

2013년 1월에 시작한 IPCC SREX의 번역이 현재, 8월에 드디어 종점을 바라보고 있다. 예상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값진 경험의 시작은 2013년 초, 1월로 돌아간다. 중학교 때부터 환경문제 중 특히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기후변화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캠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강의를 듣고, 마지막 날에는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때 처음 지금 부원들과 만나게 되었다.

IPCC 4차 보고서는 이미 한글 번역본이 있었기에 IPCC 특별 보고서 SREX를 번역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IPCC프로젝트의 초기 목표는 IPCC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극한 현상 및 재해 위험 관리에 관한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 SREX)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되었다. 하루에 한 페이지 씩 번역을 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제 5장, 지역적 수준에서의 기후극한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부분을 맡아 번역을 진행해 나갔다.

번역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에 해보았던 번역과는 차원이 달랐다. 1페이지 씩 번역을 하느라 힘들다고 하면 친구들은 겨우 한 페이지 가지고 뭐 그러냐고 나를 타박하기도 했지만, 1페이지를 번역하는 데에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개인 활동이 아니고, 공동작업인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힘들지만 꾸준히 번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번역하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것을 새로 접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즐거움 역시 이 활동을 꾸준히 하게 한 동인이었다.

그나마 여유 있었던 겨울방학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3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전체 번역을 끝내고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수정 방식은 Peer-Editing이었다. 다른 한명의 번역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적이었다. 나 혼자 번역을 하다보면, 착오가 생겨 틀리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내 번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더 완성도 높은 번역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라도 친구와 내가 다르게 표현하였던 것을 보면서 번역에 대해 여러번 고민하고,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3학년이 되어 활동을 계속 진행하니 확실히 부담이 되었다. 번역을 하고 있을 때마다 항상 갈등이 되었다. 고3인데 이려고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바로 이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본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공들여온 탑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단순히 우리는 사람들이 더욱 보고서를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그걸 잘 몰라주는 어른들,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팀을 보며 좌절감 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해관계를 탈피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책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는 중학생을 위한 요약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된 중학생을 위한 요약 활동에서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중학생을 위한 활동에서 나의 모티브는 줄곧 나 ‘자신’ 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지만, 중학생이었던 나는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해하기 어려웠고, 외국문헌들이 많아 보고서를 읽을 수도 없었다. 요약활동을 진행하면서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마치 내가 이 활동을 하는 진짜 이유를 찾은 듯 했다. 그래서 그림과 표와 같은 시각자료를 통해 이해를 도왔고, 적응 비용이라는 내용을 일반 가정의 사례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어려운 용어는 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이 깃들여져 나온 결과물은 팀원 모두의 노력과 나만의 경험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결과물을 중학생들이 읽으면서, 기후변화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지어졌다.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약 8개월동안 우리는 서로를 이끌며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아마 이 경험은 과도기에 서 있는 우리들을 어른으로 만들어 줄, 어느 때라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제가 IPCC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극한현상 및 재해 위험 관리에 관한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 SREX)를 한글로 번역하는 본 “IPCC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서울대학교와 KRICCS가 함께하는 청소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과도한 개발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환경오염 내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 보존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연구들을 접하고 이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제 또래의 다른 학생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동안 무조건 안 될 거라는 저의 부정적이고 뼈막한 인식에 대해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에,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때 저는 용인외고의 김현지 학생과 후배 2명이 나와 IPCC 프로젝트에 대하여 야심차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각자의 학교에서 진행할 동아리 활동이나 개인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발표한 반면, 김현지 학생은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환경에 대하여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열정적인 타 학교 학생들과 공동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나아가 학생들이 아직 SREX와 같은 전문화된 보고서를 직접 의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PCC 프로젝트는 금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SREX를 번역하는 일은 생각보다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한 쪽씩 번역해나간다면 서른 쪽은 금방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번역 작업에 들어가니, SREX가 워낙 고도로 전문화된 보고서라서 그런지 한 쪽을 번역하는데 적어도 한 시간, 많게는 두세 시간이 걸릴 정도로 번역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다른 고등학교보다 한 달 일찍 2월 달에 개학을 하는 바람에 번역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바쁜 시기와 겹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점점 바빠질

수록 번역 작업을 위해 하루에 두세 시간을 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두 저와 똑같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여 투정부리지 않고 성실히 번역에 임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추슬렀습니다.

가끔은 너무 복잡한 개념이 나와 제가 번역해야 할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에는 이 부분을 해석의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역시도 다른 팀원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유혹을 뿌리쳤고, 나아가 혹여 저의 어설픈 번역으로 독자들에게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 보다 명료하고 완성도 있게 번역을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할 때에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아보고, 이를 IPCC 프로젝트 팀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팀원들의 번역 시간을 절약하고 관련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맥락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친구들을 불러 물어보면서까지 번역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게 분담된 부분을 모두 번역하고 나니, 다음으로는 팀원들이 번역한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무엇보다도 번역본에 있어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기에, IPCC 프로젝트 카페에서 온라인상으로 여러 용어들을 올리고 이것들이 동일하게 번역될 수 있도록 팀원들과 협력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러했겠지만 이 즈음에 학교의 정기고사를 비롯한 여러 대회를 준비하던 와중이었기에 이 작업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해보니 이 때 저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기에 지금의 번역본이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함을 느끼며,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팀원들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미 SREX 한글 번역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때까지 한 노력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동안의 노력이 무산된 것 같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공되어있던 SREX 번역본을 보지 못한 것은 팀원 모두의 과실이기에 누군가를 탓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한편으로는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 나아가 한 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이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뜻 깊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김현지 학생이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본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어 보자는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성공적으로 SREX 번역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

습니다. 그 때의 고비를 계기로 저는 다시 한 번 이번 번역 과정에 참여하면서 배운 점들에 대하여 돌이켜 볼 수 있었고, 결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과정 자체에서 의의를 찾아보는 경험도 가져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본 번역 과정을 통하여 깨달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게 분담된 부분은 노출도·취약성 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한 기후 극한의 부정적 영향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저는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악영향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면에서 개발도상국에 심각하게 집중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난 수십 년간 유해 물질을 무분별하게 방출한 선진 국가들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이라는 점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수치들을 바라보며 거의 모든 면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들에 비해 기후변화에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하는 것은 무척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계기로 제가 미래에 국제개발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필요성을 알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IPCC 프로젝트의 팀원으로서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준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어려움을 딛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김현지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 번역본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았던 도전과 아름다운 마무리

한국외대부속용인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남다운

‘번역은 흔히들 제 2의 창작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창작의 고통은 생각보다 컸다...’

처음에 현지 언니가 제안한 이 프로젝트를 듣고 번역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끌려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프로젝트 성격 상 빨리 끝나쳐야 하기 때문에 뽁뽁한 일정 속에 진행됐다. 하루에 한 쪽이라는 분량은 어마어마했다. 말이 한 쪽이지 다단이 나눠져 있어 글로 뽁뽁하게 채워져 있다. 가끔 그림이나 표가 나오면 어찌나 반갑던지.

초기에는 용어나 표현들이 너무나도 생소하여 한 쪽을 번역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다. 더구나 내 관심분야와는 거리가 먼 정책과 경제 부문을 맡아서 배경지식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은 배로 걸렸다. 그래도 나를 몰랐던 부분의 공부도 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 한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전달이 잘 될까 수십 번을 고민해보고 이미 아는 단어라 해도 혹시나 더 알맞은 표현이 있지는 않을까 사전에 일일이 검색해 보았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놀다가도 먼저 들어와 번역을 끝마쳤던 적도 있고 심지어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도 컴퓨터를 부여잡고 몇 시간 동안 밀린 번역물과 씨름하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중간고사 몇 주 전까지 이어지는 작업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그래도 Peer Editing 작업을 할 때는 기후 변화의 자연 현상들에 관한 1장을 맡게 되어서 꽤나 즐겁게 검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이미 번역본이 존재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 또 다시 시험기간에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이를 연이어 야자를 날리며 혼자 고민하고 엄마랑 장시간의 통화를 하면서 시간도 많이 빼앗겼다. 같은 학교인 현지 언니랑 소정아랑 만나 함께 의논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젝트가 순탄치 못 했던 게 오히려 더 잘 된 일인 것 같다. 번역 그 자체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배운 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더 좋은 목적에 쓰이게 되어 기쁘다. 아직 출간과

기부의 단계가 남아있지만 진통을 겪은 만큼 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길 기원한다.

고3이라는 바쁜 시기에도 프로젝트를 이끄느라 수고한 현지 언니와 힘든 과정을 함께 겪어온 우리 프로젝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꿈과 그 도전 이어가기

IPCC 보고서 번역 및 요약 프로젝트를 마치며…….

한국외대부속용인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이소정

IPCC 프로젝트. 2013년 시작 즈음부터 지금까지 길고 긴 여정이었다. 지금 후기를 쓰고 나면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니 후련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이번 IPCC 프로젝트는 나에게 있어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지만 **내가 앞으로 꿈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 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팀원들 얼굴은 몇 번 보지 못했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자부심과 동지애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IPCC 프로젝트의 리더로 모두를 이끄느라 마음고생도 심했을, 그리고 나의 고민 상담도 많이 해 준 현지언니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IPCC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현지언니, 그리고 다은이와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가 생각난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해 알리고 기후변화를 막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지 방법을 궁리하던 찰나, 언니가 IPCC 보고서를 번역하자고 했다. 나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생각이 앞섰고 분위기가 IPCC 번역 프로젝트로 흘러가자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언니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다. 원래는 IPCC 제 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R4)를 번역하기로 했는데 이미 번역본이 있어 기후변화 적응 특별 보고서(SREX)를 번역하기로 하였다. 또한 SREX는 AR4보다 과학적인 용어도 더 적고 오히려 실생활과 더욱 연관성이 깊어 우리 청소년이 번역하기에 용이할 것 같았다. 한 명 두 명 팀원들을 모으고, 보고서를 번역하여 우리 청소년도 기후변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일 마음에 한껏 기대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나는 예린 언니와 함께 노출과 취약성을 중점으로 다루는 챕터 2를 번역하게 되었다. 꿈과 기대에 부풀어 시작한 번역은 한 마디로 ‘완전 힘듦’이었다.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에 처음에는 한 장 번역할 때 6시간을 넘게 붙잡고 있어 매일매일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건 아닌지- 절망에 빠졌었다. 그러나 차차 요령도 생기고 반복되는 단어도 많아지면서 사전을 찾아보는 횟수도 줄어들어 나중에는 한 장 번역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로 줄어 보다 빠르게 번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번역하면서 느낀 점

이 있다면 번역은 영어 뿐 아니라 한국어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국말로 번역하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영어로 읽으면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옮길지 고민한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보고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매우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나도 영어 책과 한국어 책을 고루 읽어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힘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겨울을 번역과 함께 보냈다. 겨울 내내 엄마의 구박도 많이 들었다. 공부는 안 하고 번역만 한다는 것이다. 방학 내내 하루에 한 장씩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말이 한 장이지 실제 번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숙제와 일들이 번역과 함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날이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내가 번역본을 내지 않아 번역이 밀리게 되면 다른 IPCCer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놓을 수 없었다. 나름 한 장 한 장 번역된 페이지가 쌓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뿌듯했을 뿐 아니라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도 날로 높아가고 기후변화에 대한 상식도 얻게 되어 보람찼다.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번역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많이 힘들어졌다. 주중에는 학교 수업에 숙제에 동아리에 일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말에 몰아서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나는 번역 날짜를 맞추려고 고군분투했는데, 자투리 시간에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놓고 번역은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하면서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함께 IPCC 프로젝**
에 동참하여 고생하고 있는 팀원들을 생각하면 혼자서 힘들다고 투정부릴 수는 없다고 생각
했다. 아마 지금 무사히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든 팀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1차 번역이 다 끝나고 나서, 한시를 놓았지만 더욱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었다. 바로 Peer Editing이었다. 서로 짝을 이뤄 상대방이 번역한 부분에 대해 글의 흐름과 맞춤법을 알맞게 수정하고 보고서 용어도 통일하는 작업이었는데, 나는 이 작업이 번역보다 힘들었다. 번역은 그냥 영문 보고서를 한국말로 옮기는 것이고 내 스스로 하면 되는 거지만 Peer Editing은 나의 짝이 번역한 번역물을 영문 보고서와 대조시켜가면서 읽어야 했기 때문에 눈이 매우 피곤했다. 용어도 통일해야 했기에 더욱 꼼꼼히 읽어야 했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신경도 더 많이 쓰여 수정 작업이 점점 밀렸고 나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때 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SREX 보고서가 이미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고서의 출판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보고서가 이미 번역되어 있다니……. 여태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팀원들 모

두 머리를 맞대어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그냥 출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 소설에 대한 번역본이 하나는 아닌 것처럼 SREX 보고서에 대한 번역본도 전문가의 번역과 청소년의 번역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의 서툰 번역본을 사용할 사람은 없어 보였다. 고민 끝에 결국 우리는 ‘청소년이 이해한 IPCC SREX 보고서’로 SREX의 요약본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이해한 보고서를 다른 청소년들이 읽기 쉽게 좀 더 쉬운 언어로 바꿈으로써 청소년들의 IPCC 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의 IPCC 프로젝트도 잘 마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오히려 청소년을 위한 요약 출간이 완역 출간보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도가 더 크다고 생각되기도 했다.

그 후로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기상청에서 검토를 맡아 주시기로 하였고, 우리는 각자 분량을 맡아 요약을 진행하였다. 나는 이번에는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및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인 챕터 8을 요약하게 되었고, 이미 번역을 한 번 해 본 터라 비교적 빠르게 요약을 마칠 수 있었다.

IPCC 번역 및 요약 출간 프로젝트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요약 출판 기간에는 대회를 3개나 나가게 되고 성적도 떨어져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요약까지 겹치니 그냥 암울한 생각밖에는 안 들었다. 처음에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기후변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힘들 때면 그 꿈마저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요약을 마치고 후기를 쓰면서 돌아보니, 그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냈기에 지금 이렇게 보람 있게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후기를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꿈을 위해 노력할 때, 그 꿈을 위한 여정에 순간순간마다 힘든 일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IPCC 프로젝트처럼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다독이고 응원해 준 현지언니와 다은이에게 매우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나도 이들과처럼 꿈을 위해 노력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후변화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시작한 IPCC 번역 및 출간이었지만 그 외에 나의 마음가짐과 꿈을 향한 나의 태도에 관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준 프로젝트였다. 우리 IPCCer 모두 고생 많았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디에 서 있던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다소 험난했지만 한층 성장하게 해준, IPCC Project를 마치며...

전남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정지혜

2013년 2월부터 시작한 약 6개월여 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후기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그동안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른다. 6개월이란 짧지도, 그리 길지도 않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된 걸 다시 한 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처음 IPCC 프로젝트 팀을 만나게 된 건 서울대학교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후변화 강의에서였다. 강의 후 진행된 향후 활동 계획의 발표에서 현지 언니를 중심으로 구성된 용인외고 팀의 발표는 강의수강생 누구에게나 관심을 끌 만한 활동이었다. 기후변화 강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강의 후 활동으로 기후변화 보고서를 번역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후변화를 알리자는 취지가 좋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수강생들과 같이 프로젝트 팀에 관심이 생겨 합류하고 싶다는 연락을 드리고 싶었으나 선뜻 참여의사를 보이기에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었다. 영어를 잘하고, 영어원서로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기한을 맞추 수 있을지, 번역의 질도 맞추 수 있을지 하는 문제에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민도 잠시, 그래도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었고,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현지 언니에게 참여의사 문자를 보냈고, 간단한 테스트 후 IPCC 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기 전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번역활동은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작업이었다. 번역할 양도 하루 1페이지로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영어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한국어로 쉽게 풀어서 표현해내는 작업이 어려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 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약속된 번역 기한을 맞추기 위해 나는 매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빈 시간을 틈틈이 사용하여 아슬아슬하게 번역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번역활동 초반에는 밀린 번역 양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들었었다. 따로 공부해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시간을 많이 소

비해서 번역활동을 진행하기에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번 활동까지만 하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꾸준히 번역활동을 진행해서였는지 몰라도 처음 4시간이 걸렸던 활동이 1시간 30분 정도로 짧게 단축되었고, 덕분에 번역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 다른 공부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모두 시간이 지나자 본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는지 번역활동은 수월하게 흘러갔고, 번역활동 후에는 Peer Editing을 진행하였다. 둘이 짝을 지어 상대방의 번역본을 검토해주는 작업이었는데, 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소정리와 Peer가 되어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사실, 내가 번역활동에 서툴러 실수를 많이 했는데, 오역이 많은 내 부분을 실제 보고서와 일일이 번역한 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소정리에게 많이 미안하다. 소정리는 놓친 문장 몇 줄을 제외하고는 수정할 곳이 거의 없어 내가 고생을 적게 했는데 말이다.) 수정작업은 정해진 단어의 뜻도 맞춰야 해서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가끔 놓친 부분이 있어 수정을 따로 진행하기도 했다.

순탄하게 잘 흘러가는 듯한 프로젝트 활동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혔었다.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IPCC 특별보고서의 한글판이 이미 출판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프로jek터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대안방법을 요청하였으나 대안을 찾지 못해 결국 우리 프로jek터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대안방안을 강구했다. 처음 목적은 IPCC 보고서 번역활동에서 그치는 작업이었지만 회의 후 번역본을 바탕으로 요약하여 책으로 출판하고, 기부금을 통해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활동 목표를 바꾸었다.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걱정을 하기에만 급급했었는데 다른 프로jek터들은 차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번역활동을 마치면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번역활동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지칠 때마다 ‘여기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14명의 IPCC 프로jek터들이 낙오 없이 끝까지 IPCC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리더역할을 톡톡히 해준 현지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팀의 리더가 된다는 건 그에 대한 책임감도 따르지만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주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현지 언니는 각각의 프로jek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프로jek터들의 의견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리더의 역할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터들 모두 현지 언니를 중심으로 하여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 언니뿐만 아니라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고, 좋은 의견을 항상 제공해준 IPCC 프로젝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번역활동을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해낼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IPCC 번역 프로젝트는 여러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해 준 나에게 있어 정말 특별한 활동이었다.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고, 팀원들을 서로 챙겨주는 IPCC 프로젝터들을 만나게 되어 무엇보다 제일 기쁘고, 리뷰번역이라는 어려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조언을 주고,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배려해 준 리더 현지 언니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애착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한 IPCC 번역 프로젝트를 이 후기를 끝으로 이제 정말 마감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론 노력의 결과물이 나와 뿌듯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과 조언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IPCC 프로젝터들이 번역활동에 있어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해주신 IPCC 프로젝터들의 모든 부모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나 역시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옆에서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도움을 준 친구들과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IPCC 프로젝터들이 더 멋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IPCC 번역활동에 대한 후기를 마친다.